

국제한국사학회 특별강연

2010년 8월 28일 오후 3시-4시

한국외대 일반대학원 4층 BRICS 국제포럼장

민족주의와 한국고대사

심재훈 (단국대 사학과 교수)

I. 민족주의적 동아시아 고대사 서술

21세기 벽두부터 한국을 달군 이른바 동북공정으로 초래된 고구려를 둘러싼 중국과의 역사논쟁¹⁾은 이제 숨고르기에 들어간 듯하다. 그러나 두아라가 앞의 글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경쟁에서 비롯된 민족주의가 앞으로도 지속되는 한, 그 논쟁이 재점화될 가능성 역시 상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에서 민족주의적 고대사 서술은 앞의 이성시 글에서 제시되듯 20세기 초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아직도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 삼국의 고대사 서술은 큰 틀에서 동일한 경향성을 유지하면서도, 각각의 특수성을 반영하며 전개되어왔다.

먼저 19세기 후반 이래 동아시아의 근대화를 주도한 일본의 경우 서양에서 성행하던 민족주의 사학의 수입자이자 자신들 스스로 소화해낸 그 학문의 보급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²⁾ 20세기 전반부까지 동아시아에서 정치적, 경제적 우위까지 점한 이러한 일본의 주도적 입장과 이를 뒷받침한 강력한 정부는 중국이나 한국보다는 상당히 이른 시기에 이른바 황국사관으로 대변되는 관 주도 민족사의 성립을 불러왔다. 그러나 2차 대전 패배 이래로 신화의 역사화로 특징지어지는 이러한 황국사관의 불합리성과 그에 따른 폐해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지고, 역사의 경제적 해석에 치중한 마르크스주의 사학이 유행하게 되었다.³⁾ 다른 한편으로 도쿠가와 말기 이래로 일본에서는 고증학의 학풍이 성행하여 19세기 후기 도입된 서구의 비판적 역사방법론과 함께 이른바 실증사학이 확립되는데, 이는 진정한 의미의 “일본근대역사학의 탄생”이었다.⁴⁾ 전후를 풍미한 마르크스주의 사학의 퇴조와 함께, 이후 일본 역사학계 고대사 서술의 근거에는 이러한 실증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와 이해관계가 얽힌 예컨대 임나일본부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역시 민족주의적 경향이 짙게 나타나고, 민족주의에 비판적인 진보 진영에 대응하여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후소샤(扶桑社)판 『새로운 역사교과서』로 대변되는 보수 우익의 민족주의가 새롭게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국 역시 20세기 초 일본의 영향으로 양계초(1873-1929)가 주창한 이른바 신사학이 민족사 서술을 지상과제로 제기했고, 이는 유사배(劉師培, 1884-1919) 같은 복고주의자들의 국학 부흥 운동으로 호응을 얻었다.⁵⁾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혼란을 거듭한 당시 중국의 상황은 일본과 달리 민족주의 사학의 만개에 큰 장애가 되었다. 더욱이 고증학의 후예인 고힐강(顧頡剛, 1893-1980)이 주도한 이른바 의고(疑古)의 열풍은 찬란한 중화민족사라는 전통적 인식에 큰 암운을 드리웠다. 1949년 장기에 걸친 내전을 승리로 이끈 공산주의 신중국의 성립으로 마르크스주의와 모택동주의 사학이 철저히 강요

되었지만, 민족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나름대로 객관적 인식을 취한 듯하다. 2004년 한국에서 특필된 고구려를 (중국사가 아닌) 한국사로 당연시한 1963년 주은래의 민족사에 대한 발언은 그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⁶⁾ 문화대혁명이 종료되고 등소평이 개혁개방을 주도하며 암흑기를 벗어난 중국이 1990년대 이래 경제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신중국 성립 이래의 고고학 성과는 세계 어느 지역과도 비견할 수 없는 눈부신 것이었다. 경제적 자신감과 함께 자신들의 찬란한 고대를 입증해주는 전례 없는 고고학 자료의 활용은 21세기 관 중화민족주의 사학을 대동케 했는데, 국내에 잘 알려진 국가 주도의 “동북공정”이나 “하상주단대공정(夏商周斷代工程),” “중화문명탐원공정(中華文明探源工程)”은 이러한 흐름의 결실이다.⁷⁾ 여기에 다민족복합체로서 중국에 대한 새삼스런 자각과⁸⁾ 의고 사조의 잔영에서 벗어나려는 신고(信古)에 대한 갈망이 함께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⁹⁾

한국 역시 20세기 초 일본을 통해 신채호(1880-1936) 같은 선각자들이 민족주의 사학을 도입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식민지라는 시대적 상황이 민족주의라는 흐름을 덮어 버려, 그 새로운 사조가 공적인 영역에 자리하기는 어려웠다. 반면에 일본 유학과 중심의 이른바 실증사학자들이 고대사 연구를 주도했고, 이 때문에 이병도(1896-1991)를 비롯한 주류 학자들은 대체로 민족주의 사학에 반한 이른바 식민사학자로 평가받기도 한다. 그렇지만, 고조선을 비롯한 이병도의 고대사 연구가 민족주의자들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연구가 있고,¹⁰⁾ 해방 이후 20세기 후반까지 고대사 연구를 주도한 학자들 모두를 사실상 민족주의자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 것을 보면,¹¹⁾ 민족주의가 20세기 한국 고대사 연구의 저변에 깔린 대세적 흐름이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편자는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온 지난 세기까지 “민족사학”과 “식민사학”이라는 은연중에 선악 개념이 내포된 일종의 운동식 대비가 효용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소극적 민족사학”과 “적극적 민족사학” 같은 동일선상의 구분이 20세기 한국 사학을 정치성을 배제하면서 이해하는 학술적인 구도라고 보고 있다.

나아가 “소극”과 “적극”을 나누는 주요 기준 중 하나로 만주를 한국 고대사에서 어떻게 위치시키느냐의 문제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 이미 1960년대에 만주를 민족사의 주요 부분으로 파악한 신채호를 비롯한 초기 민족주의자들의 연구가 더욱 정치하게 다듬어진 반면, 한국(남한)에서는 1980년대에야 이러한 경향이 큰 흐름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러한 한국에서의 새로운 경향에 대해 정통성이 결여된 군사정부와 극우 민족주의와의 결합으로 보는 시각¹²⁾ 못지않게, 1970년대 후반 이래의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한국인들의 자신감이 이를 고무시킨 측면도 있을 것이다. 80년대 후반 이래 만주지역 고고학 자료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준 중국과의 해빙 무드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 송호정은 80년대이래의 이러한 흐름을 재야사학자들이 주도한 것으로 폄하하지만,¹³⁾ 그 자신을 비롯한 이른바 강단사학자들 역시 정도 차이가 있을지언정 이러한 학계의 흐름 속에서 만주 지역까지 포괄하는 고조선 연구를 수행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20세기 마지막 20여년 동안 만주는 많은 한국 학자들이 다시 찾은 고대사의 고향이 되었고, 이러한 대세적 흐름 속에서 중등 역사교과서에 기원전 2333년 세워진 고조선이 만주 전역을 차지했음을 암시하는 지도까지 등장하게 된다. 20세기 초에 점화된 민족주의 역사가 같은 세기 말에 극단적 모습으로 만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강한 작용은 반드시 반작용을 부르는 법. 20세기 후반 한국을 주도하던 민

족주의사학에 대한 반성은 그 연구의 당사자들로부터가 아니라¹⁴⁾ 1990년대 이래 탈근대의 역사학을 추구하는 서양사학자들로부터 비롯되었다. 그 선봉에 선 임지현은 한국사학계가 “민족적 형식을 강조한 나머지 민족을 초역사적 자연적 실재로서 부당 전제하여” 역사를 신화의 영역으로 이끌고 있다고 비판했다.¹⁵⁾ 이러한 건강한 비판이 공감을 얻기 시작할 무렵 한국을 강타한 동북공정이라는 외래적 파고가 다시 민족주의 사학에 힘을 실어주었고, 이 무렵 임지현은 이 책의 저자 중 한 분인 이성시와 함께 20세기 이래 “만들어진 민족사”인 국사의 신화를 뛰어넘어 그 해체까지 주장하기에 이른다.¹⁶⁾ 탈근대의 역사 이론을 선도하던 김기봉도 민족에 매몰된 일국사로써 한국사 연구에서 벗어나 동아시아사라는 미래지향적 역사서술을 제안했다.¹⁷⁾ 이와 같은 맥락에서 김한규는 고구려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학계의 논쟁에서 벗어나 고구려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명멸했던 만주라는 공간을 한국이나 중국이 아닌 제삼의 시각, 즉 “요동 역사공동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제안했다.¹⁸⁾

이러한 적절한 비판과 신선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21세기가 10년을 경과한 현시점에도 민족주의와 민족사는 한국 고대사 연구의 중심을 사수하고 있는 듯하다.¹⁹⁾ 아직도 고구려가 한국사일 수도, 중국사일 수도 있다는 일견 상식적인 주장에까지도 거부감을 느끼는 주류학계의 인식이 상존하고,²⁰⁾ 그 타당성 여부는 논외로 치더라도 탈민족주의 사학의 논리를 본격적으로 반박하는 고대사 연구자의 글도 나오고 있다.²¹⁾ 따라서 탈근대에 민족사로서 국사의 틀에서 벗어나 다시 쓸 한국 고대사로 “문명교섭사”와 “인류 보편적 가치로 승화되는 역사”를 제시한 김기봉의 제언²²⁾은 당분간 큰 메아리로 울려 퍼질 것 같지는 않다. 그럼에도 탈민족주의의 흐름이 민족주의 사학 못지않은 무게로 자리할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편자는 일정한 삼국의 민족주의적 고대사 서술의 양상을 나름대로 일별하면서 각각의 특수성만큼이나 보편적인 한 가지 흐름을 감지할 수 있었다. 민족주의가 도입되어 발전하다 정점에 달한 뒤에는 반성을 거치며 새로운 모색 혹은 재편의 시기로 접어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세 초 도입된 민족주의 사학이 그 국가가 팽창의 길을 걷던 1930-40년대 국가가 주도한 황국사관으로 정점을 찍었고,²³⁾ 이후 반성의 시기에 마르크스주의 사학이 성행하다 현재는 진보와 보수 진영이 민족주의 사학의 폐기와 부활을 주장하는 재편의 과정에 있다. 중국과 한국의 경우는 20세기 전반기 각각이 처한 역사적 상황 때문에 민족주의 사학이 도입기 이후 비교적 늦게 만개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이 80년대 이후 경제적 발전과 함께 20세기 말 대중과 국가 모두가 동원된 강력한 민족주의에 기초한 민족사 서술로 정점에 다다른 반면, 20세기 말부터 자신감을 회복한 중국은 그와 유사한 길을 답습하며 현재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듯하다. 한국에서 만개한 민족사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점차 공감을 얻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 학계에서도 그러한 자성의 움직임이 시작되어 결국 하나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할 것이다. 민족사를 둘러싼 이러한 전개 과정은 실상 유럽에서도 정도와 시기에 차이가 있을 뿐 보편적 현상으로 나타난다.²⁴⁾

이러한 측면에서 고구려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 사이의 논쟁을 “말의 전쟁”(the war of words)으로 격하하며, 과도하게 반응하는 한국 학자들을 향해 보다 광범위한 역사적 맥락에서 이 논쟁을 바라볼 것을 권유한 하버드 출신 한국 고대사 연구자 마크 바잉턴(Mark Byington)의 지적은 곱씹어볼 가치가 있다.²⁵⁾ 동북공정은 시대착오적 민족사의 부활과 그 강화에 정당성을 부여해 준 점에서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논전의 와중에 한국에서의 고대사 연구를 객관적으로 되돌아 볼 기회를 가지게 해주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도 작용했다.²⁶⁾

물론 아직도 국내에는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의 민족사 탈취에 대한 위협이 상존하는 한고대사 서술에서 어느 정도의 민족주의적 융통성은 발휘될 여지가 있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고,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상대적, 방어적 민족주의에는 관대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와 국가 사이의 학문적 거리가 부쩍 가까워져 버린 21세기에 어떤 학술적 이슈도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그 정당한 설자리를 찾지 못할 것임은 자명하다. 편자가 분석한 중국의 “하상주단대공정”은 이미 국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중국 국내에서도 많은 비판에 직면해 있어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는 좋은 사례이다.²⁷⁾ 최근 황제의 역사화 추진을 비롯한 중국의 다른 역사 공정들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한계가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²⁸⁾ 마찬가지로 한국 내부의 역사 인식이나 서술 방향 역시 국제적 검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²⁹⁾

사실 탈민족주의를 외치는 논자들을 포함한 한국의 역사 연구자들 중 스스로 민족주의의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지도 모른다. 특히 민족을 배제하며 고대사 읽기를 시도하는 연구자들 중에는 혹시 자신의 연구 결과가 외국과의 논쟁에서 한국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특정 연구나 주장에 대해 “동북공정의 논리와 유사하다”라든지 “중국 측의 논리를 뒷받침한다” 등의 학술적 한계를 넘어선 듯한 비판이 심심치 않게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 속에 있는 이들을 비롯한 고대사 연구자들은 1930-40년대의 혼란스런 중국에서 “중국인으로서 민족적 자부심과 자존심을 간직하면서도 구국의 사명감과 역사학 연구라는 학자적 태도를 엄격히 구분하여” ‘민족 일원론’과 ‘강역 일통론’의 이상을 타파한 고힐강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³⁰⁾ 그가 위에서 언급된 것과 유사한 우려와 비난을 감내하면서 고통스럽게 우뚝 세운 의고의 학풍은 오늘날에도 중국 학술계의 수준을 유지시키는 버팀목이 되고 있다.

II. 고대 중국 연구 자료 새롭게 보기

구미의 고대 중국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연구 분야를 오늘날 여러 학문(주로 인문학) 분과들 중 가장 역동적인 하나로 손꼽기를 주저하지 않는다.³¹⁾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유례가 없는 중국의 방대한 고고학 발굴 때문이다. 그러한 발굴은 사마천의 『사기』등을 통해 전래된 역사상을 뒷받침하거나 뒤집기도 하면서 흥미를 더해주고 있다. 예컨대 UCLA의 로타 본 팔켄하우젠(Lothar von Falkenhausen)은 고고학 자료를 통해 얻은 역사상이 전래문헌의 역사상과 모순을 보이는 점에 주목한 바 있다. 공자나 그의 제자들이 자신들 시대의 정치적, 종교적 저변에 있는 원리들을 주(周) 왕조(기원전 1046-256년 경) 초창기에 고안된 것으로 믿으며, 왕조의 창시자들인 문왕(文王)과 무왕(武王),周公(周公)을 문화적 영웅으로 간주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지만 현대 고고학 자료는 공자가 주초에 일어난 것으로 본 의례제도를 비롯한 혁신이 사실상 서주 후기(기원전 850년 경)에야 비롯되었음을 입증해주어, 주초에 대한 이러한 관점이 역사적 창작이거나 선택적 기억에 의존한 것임을 보여준다는 것이다.³²⁾

이러한 중국의 고고학 자료는 크게 청동기나 도기 등의 유물과 갑골문이나 금문, 간독(簡牘) 등의 출토문헌 두 부류로 나뉜다. 여기서는 유물보다는 출토문헌을 통해 나

타나는 새로운 양상들을 점검하고자 하는데, II부에 실린 논문들이 이와 연관되어 있다. 21세기 들어 쏟아지는 이러한 출토문헌 자료들 중 우선 눈길을 끄는 것은 1991년 하남성(河南省) 안양(安陽) 은허 궁전구 남쪽(화원장의 동쪽)의 갑골갱(H3)에서 발굴된 문자가 새겨진 갑골 689片을 정리하여 2003년 세간에 나온 『은허화원장동지갑골(殷墟花園莊東地甲骨)』이다.³³⁾ 1936년과 1973년 소둔촌(小屯村)에서의 갑골문 발견에 버금가는 이 발굴을 통해 드러난 갑골문은 대부분 상(商) 후기 무정(武丁) 왕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어, 갑골문 그 자체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그 시기의 역사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를 더해주었다. 2003년 섬서성(陝西省) 주원(周原)의 주공묘(周公廟) 일대에서 발견된 문자가 새겨진 갑골 86편은 서주시대의 갑골문과 역사 연구에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다.³⁴⁾ 주공묘에서는 최근에도 서주 갑골이 대량 발굴되어 현재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한다.

서주시대의 청동기 역시 갑골문 못지않게 발견되었는데, 제 6장에서 쇼우네시가 분석한 양가촌(楊家村) 저장구덩이(窖藏)에서 2003년 발견된 구정(逯鼎)과 구반(逯盤)을 비롯한 다수의 명문이 담긴 청동기들은 그 일부의 사례에 불과할 뿐이다. 이러한 최근의 발굴 중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2008년부터 발굴된 산둥성(山東省) 고청(高青) 진장(陳莊) 유지에서 최근 발견된 명문 70여자가 담긴 청동 궤(簋 2점이다. 서주 전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명문은 인(引)이라는 인물이 주왕으로부터 조상을 이어 제(齊) 나라 군대를 관리하라는 명을 받은 일종의 책명금문이다. 아직 정식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명문을 제의 시조인姜태공(姜太公)의 지파로 보는 견해도 있는 만큼,³⁵⁾ 이 유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그동안 공백으로 남겨져 있던 제를 비롯한 제후국 연구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2008년 출간된 CD판 금문 모음집인 『商周金文資料通鑒』에 그 해 6월까지 확인된 명문이 있는 청동기 15,567점이 수록되어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새로운 자료가 더해 질 것으로 예상되니, 금문을 토대로 한 주대 역사 연구 역시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보인다.

갑골문과 금문보다 훨씬 이상으로 지난 세기 말 이래 가장 주목을 받는 자료는 바로 간독, 그 중에서도 초나라 죽간(楚簡)이다. 그 흥미로운 발견 과정뿐만 아니라 내용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다양한 문제 제기가 중국 내외 학자들의 지대한 관심을 끌며, 중국 문자학을 연구하는 인재들 대부분이 이제는 초간 연구에 몰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학계를 달구고 있다.³⁶⁾ 이미 국내에서도 이승률이 『오늘의 동양사상』에 초간을 포함한 간독 연구 전반에 대해 현재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글을 연재하고 있으므로³⁷⁾ 여기서 그 내용을 언급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편자가 초간을 비롯한 전국시대 죽서(竹書)와 관련하여 특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그것이 현재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삼경(三經)을 비롯한 여러 전래문헌의 유래뿐만 아니라 분서갱유 이전 문헌사의 편린에 대해서까지 실마리를 제공해주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이 책의 제 4장과 6장을 집필한 쇼우네시는 1993년과 1994년 각각 발견된 광점초간(郭店楚簡)과 상해박물관 초간(上博楚簡)을 분석하여 흥미로운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³⁸⁾ 우선 한대(漢代, 기원전후 1세기 경)에 편찬되어 현재 우리에게 전래된 『예기(禮記)』에 수록된 「치의(緇衣)」편과 전국시대(기원전 300년 전후)에 편찬된 광점과 상박 초간 중에 각각 포함된 「치의」편 세 편을 비교하여, 한대의 「치의」가 전국시대의 두 「치의」와 기본 골격은 비슷하지만, 상당히 다른 텍스트로 재탄생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전국시대의 두 필경사들이 한대의 「치의」를 본다면 다른 문헌으로 인식할

수도 있을 정도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에게 남겨진 금본(今本)과 고본(古本)의 『죽서기년(竹書紀年)』도 서기 279년 급총(汲冢)에서 죽간의 형태로 발견된 원본과 관련이 있지만, 재구성 과정에서 여러 편찬자들의 손을 거치며 무의식 중에 혹은 의도적으로, 때로는 편찬자들의 원본에 대한 무지 때문에, 변형된 모습으로 개작되었다는 것이다.

쇼우네시는 또한 관점에서 발견된 초간 16종 중 단지 「치의」편 한 편만 전국시대와 근접한 형태로 한대의 도서관에 살아남았고, 상해박물관에서 회수한 80여 종 중 단지 4종만이 전래문헌을 통해 최소한 일부라도 확인될 뿐이며, 급총에서 발견된 19종 중 단지 『주역』 한권만 당시의 편찬자들에게 알려진 것이었음을 지적한다. 이 세 무덤의 경우가 대표성을 띠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전국시대 이래 분서갱유를 거치며 한대까지 이어진 문헌은 단지 5% 이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수치는 2008년 청화대학(淸華大學)에 기증된 것으로, 사서(史書)류까지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전국시대 죽서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되는, 이른바 청화간이 완전히 공표되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아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³⁹⁾

쇼우네시가 제시한 위의 두 가지 논점은 중국 고대 학술사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문제의식을 갖게 한다. 우선, 기원전 213년 진시황이 명한 분서(焚書)의 결과이든 다른 전란 등으로 인한 파괴의 결과이든 전국시대에서 한대에 이르기까지 문헌사 상에 지대한 단절이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둘째, 현재 우리에게 고전으로 남겨진 삼경을 비롯한 대부분 전래문헌은 운 좋게도 이러한 단절에서 예외가 되었지만, 실상 이들의 토대가 된 한대까지 남겨진 전국시대 이래의 죽간들은 오늘날 발견되고 있는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미 상당히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거기에 쓰인 글자체 역시 당시에 이미 고문(古文)이라 부를 만큼 난해했다. 따라서 이들을 정리한 한의 학자들은 그 불완전한 간독을 토대로 쇼우네시가 이른바 “다시쓰기”(rewriting)라고 명명한 재구성의 과정을 거쳐 한대판 문헌을 창출했던 것이다. 이 과정은 현대의 학자들이 출토된 전국시대 죽서를 재구성하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고,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의 학자들 역시 현대의 관점에서 “다시쓰기”의 과정에 동참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셋째, 현재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폭넓게 읽히고 있는 삼경을 비롯한 이른바 중국 고전들은 그 원초적 의미가 어느 정도는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대인들의 세계관이나 역사인식까지 반영된 한대식 텍스트라는 점이다. 물론 그 자체로써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컨대 가장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는 『논어』라는 책도 그 책의 저자인 공자가 아닌 재가공의 과정을 거친 한대판 『논어』라는 애기다. 나아가 한대 이래 현재까지도 출간되고 있는 이들 고전에 대한 무수한 주석서도 일정 부분 본질에서 이탈한 변이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어떤 측면에서 그 변이체의 불확실성이 이렇게 무수한 주석서를 창출하게 했는지도 모른다.

넷째, 많은 학자들이 뛰어 들고 있는 전국시대 출토 죽서의 연구가 고전들의 원형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한 전국-한대의 격절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출토문헌들 역시 전국시대라는 시대적 산물일 수밖에 없다. 예컨대, 상박초간에 포함된 『주역』의 경우 의리(義理)식 읽기에 더 잘 들어맞아, 이미 기원전 300년 경 점복의 지침으로써 『주역』의 원초적 의미는 상실되었음을 보여준다. 청화간 중 최근 최초로 공개된 『고문상서』류인 「보훈(保訓)」편 역시 주 문왕(文王)의 임종 시대자 발(發, 후에 武王)에게 내린 유언을 담고 있지만,⁴⁰⁾ 전국시대부터나 등장하는 순

(舜)에 대한 전설이 언급되어 있고, 그 문체 역시 전래된 『상서』의 가장 오랜 편들이나 서주 금문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⁴¹⁾ 비록 서주 당대의 잔상이 부분적으로 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전국시대에 창출된 그 문헌에 담긴 역사상 역시 당대에 창출되었으리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원형 찾기 작업은 전국시대 출토 죽서뿐만 아니라, 삼경이나 다른 고전들의 원형과 그 문체를 공유했을 갑골문이나 금문 등 그 이전의 출토문헌에 대한 지식까지도 겸비하지 않으면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고증학 정신에 기초한 철저한 문헌비판 역량까지 더해져야 할 것이다.

편자는 지난 10개월 동안 UCLA에서 연구년을 보내며 그 대학의 중국 고대 문헌학자 데 이버드 스카버그(David Scharberg)와 만나 대화를 나누었을 때,⁴²⁾ 한국에서의 고대 중국문헌학에 대해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무척 당황한 적이 있다. 중국 다음으로 한학의 전통이 강했던 나라 중의 하나가 한국이기에 뭔가를 기대한 그의 질문은 일면 상식적이었지만, 당시 편자는 부끄럽게도 잘 모르겠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었다. 애매한 답변으로 당시 상황을 모면하고 나서 다시 고민하며 조사해보니, 실상 그 정답은 “한국에서는 그런 학문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였다. 그 이유를 나름대로 추적하다, 단견인지 모르지만, 청대에 성행하여 중국 근대 인문학의 기틀을 닦은 고증학이 조선에 제대로 도입되지 않은(혹은 그와 유사한 학문이 자생적으로라도 일어나지 않은) 데까지 생각이 미쳤다. 중화 문명의 유일한 수호자로서 오랑캐의 나라인 청의 문물을 경시해서든, 아니면 고증학이라는 학문이 너무 어렵고 생소해서든, 경학 위주의 이른바 대학(大學)만을 고집한 조선 후기의 선학들에까지 송구스럽게도 그 비판의 화살이 미친 것이다. 물론 신작(申緯 1760-1828)과 김정희(1786-1856), 정약용(1762-1836) 등의 저술에서 일부 고증학적 경향성을 찾아낼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⁴³⁾ 당시 조선의 정치적 획일성과 폐쇄성이 학문의 다양성을 저해하여, 그러한 신학문이 큰 흐름으로 자리 잡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20세기 전반의 암흑기를 거친 후 새롭게 학문에 정진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식민사학을 비롯한 일제식 학문 극복이라는 민족주의적 지상과제가 우리 것이 아니면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학계나 대중의 풍토를 조성한 탓도 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한국의 학계 분위기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이나 미국의 학자들은 한국의 태동고전연구소(지곡서당)와 고전번역교육원(구 민족문화추진회) 등에서 수행하는 한학교육에 대해 부러워하며 큰 관심을 표명하곤 한다. 그러나 한학에 대한 열정 가득한 우수 인재들을 모아놓은 한국의 여러 한학 교육기관들의 교육내용은 그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들 교육기관은 아마도 조선시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대체로 고증학적 문헌 분석과 비판적 읽기는 결여한 채, 주로 전통 주석의 해석에 집중하여 한문 해독 능력 함양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읽기가 한국의 전근대 자료 해석 소양을 기르는데 도움이 됨을 부인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중국 고전을 그저 한국 전근대 자료 이해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제한된 시야로는, 삼경 같은 고전을 읽을 때, 그 고전의 전통적 목차를 해체하며 구미의 주요 대학에서는 이미 상식이 된 성서연대가 이른 순으로 읽어가는 식의 새로운 발상 전환은 기대하기 어렵다.⁴⁴⁾ 이 책 제 4장에 실린 쇼우네시의 논문이 이러한 비판적 읽기의 산물임은 물론이다. 한국과 같은 경직된 학문 풍토에서 고대 중국의 문헌학과 출토문헌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까지 기대하기는 어불성설인지도 모른다.⁴⁵⁾ 뛰어난 한문 해독 능력을 지닌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적인 것에만 몰두하여 그 너머에서 더 흥

미롭고 광활한 장이 펼쳐지고 있음을 보지 못하는 현실이 아쉽다.46)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중국이나 일본과의 학술적 경쟁에 일희일비하며 그 경쟁에서의 승리보증을 염원하면서도, 정작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인 동아시아 문명의 원형에 대한 올바른 이해 추구에는 짐짓 무관심하다. 어떤 측면에서 한국 고전학을 비롯한 국학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는 고대 중국 연구의 자료에 대한 제대로 된 기반 없이, 앞으로 더욱 거세질 수 있는 중국의 학술적 도발에 적절한 대응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지도 모른다. 일본에서의 동아시아학이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은 훌륭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중국고전을 비롯한 기초자료에 대한 탄탄한 연구가 없었다면 불가능할 것이다. 이제 우리들의 시야를 더 넓혀 서양 사람들이 그리스나 로마 문명을 큰 거부감 없이 공통의 유산으로 여기는 것처럼, 현재 고고학 자료를 통해 드러나는 찬란한 중국문명을 동아시아 문명의 요람으로 함께 공유하고 즐기며,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을까? 이러한 편자의 기대가 아직도 사대주의적 사고로만 치부될 것인가?

한국에서 중국학을 비롯한 동아시아학이 화이부동이라는 산고의 과정을 지혜롭게 극복하며, 최소한 그 학문의 한 축을 당당히 담당할 수 있는 날을 기원한다.

주

- 1) 편자는 국내의 학계나 언론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해온 이른바 “역사 전쟁” 혹은 “역사 분쟁”이라는 용어는 정치적 색채가 짙은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전국민적 성원과 함께 역사학계의 주류가 이 논쟁을 주도한 한국의 경우는 그렇게 인식될 수도 있을지 모르나, 주로 동북지방에서 활동하는 지역 학자들에 국한되어 대중의 관심을 거의 끌지 못한 중국의 경우 그렇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 2) 당시 일본의 서양학문 도입과 번역을 통한 일본식 수용에 대해서는, 가토 슈이치/마루야마 마사오, 임성모 옮김, 『번역과 일본의 근대』(서울: 이산, 2000) 참고.
- 3) 坂本太郎, 박인호/임상선 옮김, 『일본사학사』(서울: 첨성대, 1991), 227-229. 함동주, 「전후 일본의 역사학과 민족문제: 점령기(1945-1952)를 중심으로」, 『동양사학연구』68 (1999): 179-208은 전후 일본 진보사학계의 민족주의에 대한 반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논하고 있다.
- 4) 누마타 지로(沼田二郎), 「시게노 야스츠크와 역사서술의 근대 도쿄전통」, W. G. 비슬리/E.G. 폴리블랭크 엮음, 이원화/최자영 옮김, 『중국과 일본의 역사가들』(서울: 신서원, 2007), 394-411.
- 5) 유사배의 국학에 대해서는, 이원석, 『근대중국의 국학과 혁명사상: 유사배의 국학과 혁명론』(서울: 국학자료원, 2002) 참고.
- 6) 「주은래 전 중국총리, "고조선-고구려-발해 모두 한국역사"」, 『프레시안』 2004년 8월14일.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040813091527&Section=05>
- 7) 동북공정에 대해서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판적 연구들이 나와 있지만, 최근 “하상주단대공정”과 “중화문화탐원공정”에 대해서도 국내 학계의 비판적 검토가 이루어졌다; 김경호 외, 『하상주단대공정: 중국 고대문명 연구의 허와 실』(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8); 박양진 외, 『중국 문화탐원공정과 선사 고고학연구 현황분석』(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8).
- 8) 윤휘탁, 「‘以古爲今’: 중국의 민족문제와 중화민족 국가관」, 『동북아역사논총』21 (2008): 193-197.
- 9) 최근 중국 학계의 의고와 신고를 둘러싼 논쟁의 추이에 대해서는, 심재훈, 「하상주단대공정과 신고 경향 고대사 서술」, 『한국사학사학보』16 (2007): 104-109 참고.
- 10) 조인성, 「이병도의 한국고대사 연구와 식민주의사학의 문제: 『한국고대사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14 (2009): 285-303.
- 11) Hyung Il Pai, Constructing "Korean" Origins: A Critical Review of Archaeology, Historiography, and Racial Myth in Korean State-Formation Theories (Cambridge: Harvard

- University Press, 2000), 1.
- 12) 송호정, 『단군, 만들어진 신화』(서울: 산치림, 2002), 224-225.
- 13) 위 책, 224-234.
- 14) 물론 주 10)의 재미 학자 배형일의 연구는 한국의 민족주의적 고대사 연구를 본격적으로 비판한 책이다. 이 책에 대해서는 심재훈의 서평, 「20세기 한국 상고사 연구에 대한 반성」, 『歷史學報』172 (2001): 367-376 참고.
- 15) 임지현, 「한국사 학계의 ‘민족’ 이해에 대한 비판적 검토: 보편사적 관점과 민족사적 관점」, 『민족주의는 반역이다』(서울: 소나무, 1999), 52-84.
- 16) 임지현, 이성시 편,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서울: 휴머니스트, 2004).
- 17) 김기봉, 『역사를 통한 동아시아 공동체 만들기』(서울: 푸른역사, 2006).
- 18) 김한규, 『요동사』(서울: 문학과지성사, 2004).
- 19) 특히 김한규가 제안한 요동사는 극심한 비판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이 문제에 관한 깊은 논의는 유보하지만, 혹시 이러한 시각이 정치성에서 자유로운 서양 학계에서 제기되었다면 국내 학계의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하다.
- 20) 송기호, 『동아시아의 역사분쟁』(서울: 솔, 2007), 304-305.
- 21) 강중훈, 「최근 한국사 연구에 있어서 탈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고대사연구』52 (2008): 57-90.
- 22) 김기봉, 「한국 고대사의 계보학」, 『한국고대사연구』52 (2008): 22-55.
- 23) 황국사관 전반에 대해서는 김선민 외, 『황국사관의 통시대적 연구』(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09) 참고.
- 24) 박용희는 랑케부터 통일 이후까지 독일 민족사의 전개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이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분단이라는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독일의 경우는 한국과 대비하여 시사하는 크다(「근대 독일 역사학의 민족사 기획」, 『한국사학사학보』16 [2007]: 187-222).
- 25) Mark Byington, "The War of Word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Over An Ancient Kingdom: Why Both Sides Are Misguided," History News Network 2004년 9월 6일 <<http://hnn.us/articles/7077.html>>. 바잉턴은 현재 국제교류재단과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으로 하버드대학에서 "Early Korea Project"를 수행하며 주로 한국에서의 주요 연구 성과를 영어로 번역한 Early Korea 1: Reconsidering Early Korean History through Archaeology (2008)과 Early Korea 2: The Samhan Period in Korean History (2009)라는 시리즈를 Harvard Korea Institute를 통해 출간하고 있다. 한국과 서양에서의 한국고대사 연구를 이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6) 탈민족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한 강중훈도 그동안의 과도한 민족주의적 고대사 서술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본다(「최근 한국사 연구에 있어서 탈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85-86).
- 27) 심재훈, 「하상주단대공정과 신고 경향 고대사 서술」, 111.
- 28) 김선자, 『만들어진 민족주의 황제 신화』(서울: 책세상, 2007); 박양진, 「중국역사공정의 비판적 검토: 하상주단대공정과 중화문명탐원공정을 중심으로」, 『역사비평』82 (2008): 299-320.
- 29) 심재훈, 「한민족 형성과 동아시아」, 세계속의한국편찬위원회 『세계 속의 한국』(용인: 단국대학교출판부, 2008), 58-59.
- 30) 김병준, 「민족과 고대사: 고힐강의 삶과 학문세계」, 성균관대학교 BK21 동아시아학 융합사업단 편, 『근대 동아시아 지식인의 삶과 학문』(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173-200. 역시 김병준이 번역한 고힐강의 『고사변자서』(서울: 소명출판, 2006)도 고대사 연구자에게는 필독서이다.
- 31) Lothar von Falkenhausen, Chinese Society in the Age of Confucius (1000-250 BC): The Archaeological Evidence (Los Angeles: Cotsen Institute of Archaeology, 2006), 26.
- 32) 위 책, 제 1장과 2장.
- 33)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編, 『殷墟花園莊東地甲骨』6冊 (昆明: 雲南人民出版社, 2003).

- 34) 심재훈, 「周公廟 발굴과 의의: 西周 王陵과 岐邑 소재지와 관련하여」, 『중국고대사연구』14 (2005): 9-12.
- 35) 「高青陳莊遺址與姜太公有關 南水北調爲其讓路」, 『齊魯網』2010년 4월 13일 <<http://news.iqilu.com/shandong/kejiaoshehui/20100413/218146.html>>.
- 36) 특히 武漢大學 簡帛研究中心의 簡帛網(www.bsm.org.cn)과 簡帛研究網站(<http://www.jianbo.org>), 復旦大學 出土文獻與古文字研究中心網站(<http://www.gwz.fudan.edu.cn>), 清華大學confucius2000網站(<http://www.confucius2000.com>) 등이 관련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소통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 37) “이승률 교수의 간백강의”제 6강에서 초간을 다루고 있다(「초간의 종류와 내용 I」, 『오늘의 동양사상』 20[2009]: 195-249). 최근 김경호도 한국까지 포함한 동아시아 간독의 발견 상황과 연구 성과에 대해 일별한 바 있다(「21세기 동아시아 출토문헌자료의 연구 현황과 ‘자료학’의 가능성: 고대 동아시아사 이해를 중심으로」, 권인한 외 편, 『동아시아 자료학의 가능성』[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 31-72).
- 38) Edward L. Shaughnessy, *Rewriting Early Chinese Text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6). 이하 쇼우네시의 연구에 대한 기술은, 심재훈, 「하상주단대공정과 신고경향 고대사 서술」, 108-110에도 나와 있다.
- 39) 청화간 전체 최소 63편 중 전래문헌 상의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니는 경우는 현재까지 『尙書』류와 『逸周書』류의 몇 편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40) 李學勤, 「論清華簡‘保訓’編的幾個問題」, 『文物』2009-6: 76-78.
- 41) 清華大學出土文獻研究與保護中心, 「清華大學藏戰國竹簡‘保訓’釋文」, 『文物』2009-6: 73-75.
- 42) David Scharberg는 『左傳』과 『國語』의 구전적 성격을 밝힌 그의 저서 *A Patterned Past: Form and Thought in Early Chinese Historiograph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로 2003년 서구 아시아학계에서 가장 영예로운 저작상인 Joseph Levenson Prize를 수상한 바 있다.
- 43) 서경요, 「조선조 후기 학술의 고증학적 경향」, 『유교사상연구』7 (1994): 501-514.
- 44) 예컨대, 『상서』의 경우 현행 목차를 거꾸로 「주서」, 「상서」, 「하서」, 「우서」의 순으로, 『시경』은 「주송」, 「대아」, 「소아」, 「국풍」, 「상송」의 순으로 읽는 것이 문헌비판적 읽기에 근접한 방식이다.
- 45) 『주역』의 원초적 의미를 추구하여 『주역』연구의 한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받는 고흥(高亨)의 주역 연구(『周易古經今注』, 1947; 재판 1987 中華書局)가 1995년 국내에서 『고형의 주역』(예문서관)이란 제목으로 출간된 것은 다행스럽지만, 2002년쯤 절판되어 수요 부족으로 아직 재판 계획이 없다는 출판사 측의 설명도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 46)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도 고증학적 문헌비판을 추구하며 갑골문과 금문, 간독 등 중국 고문자 연구에 열정을 바치는 “청동기금문연구회”와 “초간유편독회” 등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연구 모임이나 존재함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강연원고는 2010년 10월에 간행될 심재훈 편 <<화이부동의 동아시아학-민족사와 고대중국연구자료 성찰>>(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총서)의 결론부분(제7장)을 정리한 것이다.